

문희준-소울 결혼...아이돌 1호 부부 탄생

소울 “요트 프로포즈에 감동 받아”

강타·토니·유재석 등 참석 축하

‘아이돌 1호 부부’인 그룹 H.O.T 출신 문희준(39)과 크레용팝의 소울(26)이 12일 화족을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가족과 동료 연예인들의 축복 속에 백년 가약을 맺었다.

둘의 결혼식은 KBS 아나운서 출신 조우종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축가는 문희준과 H.O.T에서 함께 활동한 강타가 맡았다. 또 H.O.T 출신 토니안과 크레용팝의 금미가 각각 신랑·신부를 위해 축사를 선사했다.

신화의 이민우를 비롯해 홍경민, 주영훈, 배기성, KCM, 크레용팝 멤버들, H.O.T출신 이재일, 유재석, 박경림, 바다, 씨스타 등 동료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둘은 2년 전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결혼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너무 많이 떨린다. 어제 잠이 오지 않더라”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서로에게 반한 계기로 소울은 “오빠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잘 챙겨준다. 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웃는 모습도 순수해 끌렸다”고 말했다.

문희준도 “반한 계기는 비슷한 것 같다”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웃음을 드리는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집에 가면 말이 없는 편이다. 그런데 소울이는 저보다 웃기려고 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 즐겁다. 그런 모습에 반했다”고 화답했다.

또 소울은 요트에서 문희준의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소울은 “오빠가 바빠서 못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럽선을 타러 가자고 했다”며 “가보니 귀여운 요트가 하나 있더라. 거기서 오빠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을 받고서 평생 울었다. 무척 고맙다”고 말했다.

문희준도 “결혼 전에 프로포즈하고 싶었다”며 “어떤 프로포즈를 하면 고민하다가 검색을 했는데 1위가 요트 프로포즈였다. 그래서 요트를 섭외하고 편지를 쓰고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이돌 1호 부부’란 말에 문희준은 “아이돌 커플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낀다”고도 했다. 문희준은 “가끔 음악 이야기를 하면 서로 신나게



이야기한다”며 “신기하고 좋은 건 소울이 록을 좋아한다는 거다. 처음에는 사귀는 사이여서 제 음악을 좋아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 노래를 거의 외우다시피했다. 그래서 저도 크레용팝 노래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울은 “가끔 서로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출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또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면 잘 말해줘서 ‘선배님이구나’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문희준은 팬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도 전했다. 하루 전날 그는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20주년 콘서트를 열었다”는 일부 팬들의 의혹에 대해 해명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저로 인해 속상해하는 팬들도 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떤 게 사실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로의 애칭이 ‘여보’, ‘강아지’라는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부부로 살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소울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바라보기”라며 “모범적인 부부로 살겠다”고 말했다.

문희준도 “다투지 말고 지금처럼, 신혼 때처럼 평생 예쁘게 살자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문희준은 1996년 H.O.T 멤버로 데뷔해 2001년 팀 해체 이후 솔로 가수와 예능 MC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소울은 2012년 크레용팝 멤버로 데뷔해 ‘빠빠빠’가 크게 히트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황장애를 이유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휴식을 가졌다.

비스트를 비스트라 부르지 못한다?



상표권 가진 전 소속사 새로운 비스트 결성...팀명 갈등 고조

그룹 비스트의 전 소속사가 새로운 비스트 결성을 예고해 팀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비스트를 데뷔시킨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10일 “(작년 비스트에서 탈퇴한 멤버) 장현승을 주축으로 새로운 3인조 비스트를 결성한다”고 밝혀서다.

이는 지난해 말 전속 계약 만료로 큐브를 떠난 기존의 비스트가 팀 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스트라는 팀명에 대한 국내 상표권은 큐브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큐브는 장현승과도 새로운 비스

트 결성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현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뭔 소리인지 이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라며 “나 정말 가수가 인스타그램으로 해명하는 거 진짜 맛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기존 비스트의 새 동지인 아라운더어스는 “최근까지도 팀명 관련 논의를 했는데 큐브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금지조문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창욱, 첫 주연부터 잘나간다

영화 ‘조작된 도시’ 박소오피스 1위

액션영화 ‘조작된 도시’와 ‘공조’가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가 동시에 배급하는 두 영화는 주말 극장가에 흥행 1, 2위를 달리며 극장 관객 60%를 싹쓸이했다.

지난 1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박광현 감독의 신작 ‘조작된 도시’는 전날 35만3203명을 불러모으며 박소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9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총 71만 5947명이다.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스크린 수는

개봉일 771개에서 현재 1006개로 늘어났다.

지난 18일 간판을 내건 ‘공조’는 개봉 25일째인 전날 22만5587명을 추가하며 7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1월 개봉 흥행작 ‘수상한 그녀’와 ‘베를린’보다 빠른 흥행 속도다. ‘수상한 그녀’와 ‘베를린’은 개봉 27일째와 34일째 각각 700만 명을 넘어섰다.

‘조작된 도시’(36.1%)와 ‘공조’(23.5%)의 극장 매출액은 59.6%에 이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킴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00 월화드라마 (화강)(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우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전망대	00 SBS 12 뉴스 40 2017 SBS 특별기획 대전주자 국민연결(재)
1	00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법상의 진실) 55 명인(재)	00 이웃집 찰스(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2	45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6(재)	00 2시,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톡? 톡!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톡콘서트 화동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MBC 특집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화강)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미니시리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절적드라마 (리셀 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길	10 2017 SBS 특별기획 대전주자 국민연결
12	30 101세의 프로포즈(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MBC 뉴스 24 40 스포츠 특선 (2017 전미 피겨선수권대회)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0 이팝! 스페이스 정글	13:55 시계마을 타기투!	19:3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매주 문명여행 1부 쿠스코, 잉카를 풍다)	09:40 부모-위대할 엄마	14:25 허풍선이 귀학소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담가슴살 카리비움법과 미역 미소된장국)	15:05 피터 래빗	(캐그 먹고 행복하라)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잭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5:35 오솔 상자(2)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1부 불의 땅을 가다. 복싱)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글로벌 가족특집기 -한국에 산다	15:45 출동! 슈퍼펍스	21:30 한국기행
08:00 덩동맹 유치원 1~2	12:40 지식채널 e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겨울과 산다 1부 무조건 간다)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출격! 수학 EBS MATH	16:45 덩동맹 유치원 1~2(재)	22:45 달라졌어요
09:15 출동! 슈퍼펍스	13:50 그림을 그려요(2)	17:30 로보카 폴리(재)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7:45 꼬마버스 타요(재)	(별 젤리와 별레 회의)
		18:0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4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19:00 강철소총대 피어오르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3일(음 1월 17일 辛未)	
	48년생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전혀 무리는 없었다. 60년생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72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도다. 84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1, 88		42년생 현상의 이면까지 살펴보아야만 낭패를 방지할 수 있다. 54년생 다시 한번 해보라. 66년생 돈이 없어서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78년생 상대의 사정부터 잘 파악해 보라. 90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4, 32
	49년생 사소한 원인도 경시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여유를 부리고 있을 계제가 못되느니라. 73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85년생 자연스러움 속에서 북이 깎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2, 19		43년생 우회하는 편이 더 좋다. 55년생 덕이 쌓인만큼 공격적으로 걸음을 부르라. 67년생 무의미했던 것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리라. 79년생 듣고 참고만 하자. 91년생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 55
	50년생 힘은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62년생 어려움의 규모가 상당하고 매우 거칠다. 74년생 원인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아. 86년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긴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91, 15		44년생 예기치 못한 돌발적 현상으로 인해서 형세가 악화될 수 있다. 56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니라. 68년생 협력자를 자처하는 이를 주목해 볼 일이다. 80년생 좋은 악은 입에 쓰고 참된 말은 귀에 거슬리느니라. 행운의 숫자 : 05, 03
	51년생 조안을 구해본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 63년생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오하고 있는 편이 더 낫다. 75년생 절실히 바라던 일이 훌쩍하게 이루어지겠다. 87년생 주관이 분명하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83		45년생 다양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57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생각하다가 큰일날 수가 있다. 69년생 별 말처럼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81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0, 77
	52년생 철저히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64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76년생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일들이 재개되리라. 88년생 지나치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49		46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많이 깨는 법이다. 58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70년생 여러 가지 행운이 보따리 채 수가 있도다. 82년생 본디의 상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노심조시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6, 68
	53년생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손재가 따른다. 65년생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서 처리해야 할 일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마당이다. 77년생 구태의연함을 정리하여야 한다. 89년생 중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5, 65		47년생 과욕의 크기만큼 잃을 수밖에 없다. 59년생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행함이 가장 무난하다. 71년생 평상시에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83년생 역량을 강화하자. 행운의 숫자 : 43, 5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